



역사에 가정을 더하다 **'과몰입 인생사' 리뷰**

이원용 SBS 방송기술팀



개요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선택은 인생을 넘어 역사를 바꿔 놓기도 하죠.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가 최근 즐겨 보고 있는 프로그램의 나오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바로 SBS의 <과몰입인생사>입니다. <과몰입인생사>에 대해 관전 Point들을 알아보고 제가 왜 즐겨 보고 있는지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개

SBS는 그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높이는 대중적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완성도 있게 제작하는 지상파 채널로 알려져 왔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사건들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방송을 만들어 왔습니다. <과몰입인생사> 역시도 이러한 SBS만의 특색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몰입인생사>는 2023년 8월 31일부터 2주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후, 지난 2023년 12월 28일 정규 편성되어 방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선택형 역사 토크쇼인 <과몰입인생사>는 특정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정적 순간, 나라면 어떤 선택 했을지 가정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과몰입’하여 나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게 하여 능동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중 어떤 점이 특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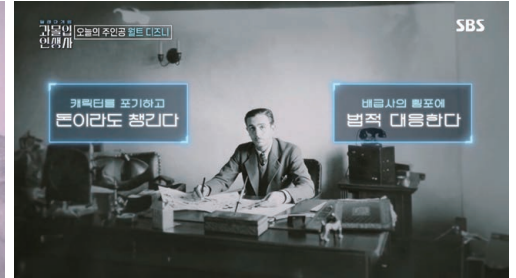
Point ①

역사의 갈림길에서 나의 선택은?

당신이 이소룡이라면? 당신이 월트 디즈니라면? <과몰입인생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형 역사 토크쇼입니다. 내가 해당 인물이 되어 역사의 갈림길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반대되는 선택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보다 높은 몰입감을 줄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해당 인물에 ‘과몰입’하게 만듭니다. 역사라는 객관적인 정보에 가정이라는 요소를 결합해 시뮬레이션한다는 설정이, 시청자들에게 본인의 선택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몰입인생사 EP1 중



과몰입인생사 EP2 중

관전

Point ②

스토리텔러와 인물의 관계성

<과몰입인생사> 1화에서는 이소룡의 인생사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로 방송인 ‘이경규’ 님이 출연합니다. 본인이 한 평생동안 인생을 이소룡에 ‘과몰입’했다고 얘기하며, 이소룡의 인생사를 들려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에피소드에서 스토리텔러와 인물이 관계가 있거나, 실제로 ‘과몰입’하여 해당 분야에 능통한 스토리텔러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심을 다해 인물들의 인생사를 들려주다 보니 시청자들에게도 몰입감 있게 다가옵니다.



과몰입인생사 EP1 중

관전
Point ③

흡입력 있는 연출

<과몰입인생사>에서는 보다 높은 흡입력 있는 연출을 위해 확장현실, 즉 XR 기술을 사용하여 스튜디오를 구성하였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나 주제에 맞는 상황을 구현하여 이를 가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청자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러, 리스너들을 포함한 전 패널들 역시, 상황의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되고 이 점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흡입력 있게 다가오는 연출적 요소로 다가옵니다.



과몰입인생사 EP1 XR 촬영장면



과몰입인생사 EP2 XR 촬영장면

리뷰를
마치면서

이외에도 <과몰입인생사>에는 다양한 흥미로운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필자가 시청자의 입장에서 본 관전포인트를 바탕으로 리뷰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어떠한 특정 사건에 중심을 두었던 기존 역사 관련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과몰입인생사>는 보다 개인에 초점을 맞춰 스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 있는 콘텐츠일 뿐만 아니라 이름있는 인물들로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들의 유년 시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터닝포인트들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역사적 인물의 삶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방송 프로그램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방송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